

서구청장 후보 경선 '파란'

대한민국, 월드컵을 품다

민주 컷오프 관료출신 모두 탈락...여성·청년 3명 압축 탈락후보 11명 "가산점 등 공정성 문제있다" 재심 신청

민주당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경선 예비후보 1차 압축(컷오프)에서 행정관료 출신들이 무더기로 탈락하고 여성과 청년 후보 3명이 발탁됐다.

하지만, 일부 탈락 예비후보들이 공천심사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는 지난 25일 오후 중앙당에서 서구청장 재선거 공천을 신청한 14명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실시한 결과 경선 후보로 김선옥 전 광주시의원, 박해자 호남대 교수, 송갑석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 등 여성 2명과 청년 1명 등 3명으로 압축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당 기여도와 정체성, 도덕성, 자질·능력·당선가능성, 면접 점수 등을 반영해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선

정된 경선후보 3명은 여성 가산점(15%)과 청년 가산점(10%) 등이 반영되면서 다른 후보들을 제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점을 통해 여성, 청년 후보들이 약진한 셈이다.

이 때문에 풍부한 행정경험 등으로 1차 컷오프 통과가 점쳐졌던 임우진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조용진 전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등이 모두 탈락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외의의 결과'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컷오프를 통과한 3명을 상대로 오는 28일 TV 토론회를 거쳐 시민(50%)과 당원(50%) 여론조사를 한 뒤 30일경 최종 후보를 선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예비후보 압축과정에서 탈락한 일부 예비후보들이 여성·청년 가산점 부여에 대한 형평성 등 공천심사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강

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서구청장 재선거 1차 압축 과정에서 탈락한 예비후보 11명은 26일 "예비후보 압축 과정의 공정성에 의의가 없다"며 가산점 부여에 대한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들은 TV토론회 등 이후 진행될 예정인 모든 공천심사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재심신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탈락 후보들 중에서 무소속 단일후보를 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여성 및 청년들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당헌·당규로 명시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혀 탈락 후보들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6일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우승한 한국대표팀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합의 불발...에타는 이산가족

태극소녀들 사상 첫 세계제패

北 금강산관광 재개 요구...내달 1일 남북 추가 접촉

대한적십자사(한적)와 북측 조선 적십자회는 24일 개성 자남산역에서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2차 실무접촉을 가졌지만 북측이 '상봉장소'를 매개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함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통보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은 10월 1일 추가 접촉을 갖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된 접촉에서 북측은 "이산가족면회소 등 금강산지구 내 모든 시설이 몰수·동결된 만큼 금강산면회소 이용을 위해서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매개로 한다"고 주장했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산가족상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북측은 특히 "이산가족면회소뿐 아니라 금강산 지구 내 모든 시설이 동결·몰수된 것"이라고 강조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금강산지구 내 제3의 장소도 상봉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이산가족면회소는 금강산관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로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상봉행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산가족면회소를 사용할 수 없다면 북측이 구체적인 상봉장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10월1일 추가 접촉에서도 금강산관광 재개를 매개로 한 상봉장소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측의 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 인정과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봉 규모에 대해서도 우리 측은 이전보다 많은 규모의 상봉을 주장한 반면, 북측은 기존과 같은 100가족 수준에서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이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북측은 "10월 중순 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상봉 정상화 등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봉 장소 문제로 상봉일정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 남북이 의견집금을 보였던 상봉일정(10월21~27일)도 순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U-17여자월드컵 일본 꺾고 우승

여민지 득점왕·MVP...북한 4위

'17세 태극 소녀'들이 연장전 혈투 끝에 승부차기에서 '영원한 라이벌' 일본을 꺾고 역대 남녀 태극전사를 통틀어 사상 첫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대회에서 우승하는 금자탑을 완성했다. <관련기사 18·19면>

포트오브스페인의 헤슬리 크로퍼드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일본과 2010 FIFA U-17 여자월드컵 결승전에서 연장전을 포함해 120분 동안 벌인 혈투 끝에 3-3으로 승부를 내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5-4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가 한국 땅에 처음 선보인 지 무려 128년 만에 역대 남녀 대표팀 선수들이 단 한 차례도 오르지 못했던 FIFA 주관대회 첫 결승 진출과 더불어 첫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특히 여민지는 이번 대회 6경기를 치르면서 모두 8골 3도움을 달성해 국내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FIFA 주관대회 득점왕(골든부트)과 대회 최우수선수상인 골든볼까지 차지하는 영광을 맛보며 대회 우승과 더불어 '트리플 크라운'을 완성했다.

한편, 북한은 결승전에 앞서 치러진 스페인과 3~4위 결정전에서 하구엘 피넬에게 결승골을 허용해 0-1

로 졌다. 이로써 스페인이 3위에 올랐고 북한은 최종 4위로 대회를 마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경북 자율형 사립고 지정

- ✓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을 모십니다.
- ✓ 전국 최상위 **학력** 재단
- ✓ 전교생 수능 **최첨단 명품** 기숙사 신축
- ✓ 보다 폭넓은 **장학금 제도**
- ✓ 2009년 교육부 선정 **영어 리더 학교**

-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
보문고등학교
입학문의 062-940-8800

201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믿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는 56년의 기독교명문대학입니다.

가정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뢰을 말씀은 9월 7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신입생부처 (학자급 대출년도가 제한)되는 대학을 발표하면서 우리 광신대학교를 그 가운데 한 대학으로 기명하여 우리 대학교가 사실과 달리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1. 우리 대학교는 재정건정성이 우수한 튼실한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1954년 설립되어 올해로 개교 56년 된 기독교대학교입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에 수많은 성직자와 봉사자를 배출해 왔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하는 것처럼 부실한 대학교가 아닙니다. 우리 대학교는 현재까지 수익용기본채산을 100%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수년째 교원확보를 역시 100%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장학금지급을 역시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 튼실한 대학입니다.
- 2. 대출 제한대학의 선정 평가기준의 공정성이 결여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대학은 정보공시제도를 통해 대학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이 공개자료를 통해 정부는 물론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대학을 속속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대출제한대학 선정 기준으로 사용된 지표는 100여개의 정보공시항목 중 약 9개의 항목만을 가지고 평가했으며, 그나마 9개 항목간의 배점도 최고 7배나 차이(최소5%반영, 최고 35%반영)를 두는 등 평가 기준의 공정성이 없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은 2010년 현재의 자료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2008년도의 자료 등 과거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되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 3. 지방대학과 소규모 특성화대학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학들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몸집을 줄이는 등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 항목으로 선택된 9개 항목 중 비수도권 지방에 위치한 소규모대학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재학생총원율'을 가장 높은 비중을 부여하여 35%나 반영하였고, 역시 수도권대학에 비해 불리한 '취업률'을 20% 반영하면서, 현재 대규모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전임교원확보율'은 5%밖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장학금지급률' 역시 5%밖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지난 7일 밤 9시 TV뉴스에서 보도된 것처럼, 교과부가 30개 대학교들이 이의서를 제출할 경우 다시 조정할 뜻을 보도하였고, 실제로 지난 9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대학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전면 재평가하여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현재의 사태를 수습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이의서를 제출하여 투명하고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번 일련의 사태는 하나님께서 우리 광신대학교에 보다 더 좋은 미래를 주시기 위한 시련이라 생각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광신대학교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16일
광신대학교 교직원일동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